

# 광주시교육청, 등교수업 확대 학사운영 안정화 특별방역



##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학교 방역강화

10월 31일~11월 22일 토·일 8일동안 집중 방역

광주시교육청이 2학기 등교수업의 전면 확대를 위한 특별방역을 오는 10월 31일~11월 22일 주말(토·일요일)을 이용해 8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 특별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고, 그동안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했던 학사 일정의 정상화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특별방역은 광주 유·초·중·고·특수·각종·대안학교 등 522교를 대상으로 26개 전문방역업체에 위탁해 ULV초미립자살균방식으로 실시된다. 다만 주중에는 학생 수업과 교육활동으로 방역소독에 어려움이 있어 오는 10월31일~11월22일 주말을 이용해 학교별·권역별로 집중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환경식 안전총괄과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2학기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사운영 안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방역을 통해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학교 안전방역체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인호기자

## 화순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위한 놀이중심 수업나눔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28일 관내 공립유치원 교원 35명을 대상으로 2020.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순천비봉유치원 고유진수석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놀이중심 수업을 실습해 보고, 수업 나눔을 통해 현장의 놀이수업 사례 및 교사의 수업 고민들을 직접 나누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교사가 확장해 주고 지원해주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연수를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요구하는 놀이중심 수업의 모습을 그려 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교육지원청 최원식 교육장은 "유치원 생활은 유아들의 본능을 사회적 욕구로 바꾸는 시기로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즐기며 그 속에서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고무 경험시켜 따뜻한 가슴과 반짝이는 머리를 가진 미래사회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자"고 강조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진도 금성초, '바스락바스락 숲속 작은 음악회'

### 작은학교 '특색 활동'의 모범 사례로 입소문 타고 있어

진도 금성초등학교(교장 김덕용)는 지난 28일 '바스락 바스락 숲속 작은 음악회'를 본교 삼나무 숲에서 개최했다. 작은 음악회에서 학생들은 합창, 리코더 연주, 리코더-멜로디언 합주 무대를 구성하였고, 방과후에 실력을 갈고 닦은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 특히, 우리 고장의 얼과 정신이 깃든 '충무공 벽파진 전첩비의 노래'를 합창하며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아름다운 숲속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작은 음악회에는 본교 5학년 학생들이 손수 만든 초대장을 전해 받은 진도교육지원청 이문포 교육장이 깜짝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며 자리를 빛냈다. "정성 들여 꾸민 초대장을 받고 교사 시절 감동이 떠올랐다"며 초대장에 손수 답장을 써서 고마움을 전달한 이문포 교육장은 음악회가 끝날 때까지 학생들과 함께 하였

다. 이번 음악회에 참여하여 '학교 가는 길'을 연주한 6학년 김소령은 "이번 공연으로 그동안 연습한 곡을 들려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악기 소리에 집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기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교 김덕용 교장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이번 작은 음악회를 알게 되어 기쁘고, 특히 숲속에서 듣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피아노 독주 무대가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말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금성초의 작은학교 숲속 프로젝트는 사계절 내내 작은 감동을 만들어내는 교육활동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하고 있으며 진도의 작은학교 특색활동의 모범 사례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 순천 효산고, '또 다른 나를 만나요' 실내 클라이밍 도전

###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40여명 학생들·인솔교사 3명 함께 실시



순천효산고(교장 최상경)는 27일 오후에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0여명의 학생들과 인솔교사 3명이 함께하는 실내 클라이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순천효산고는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억압된 위기 학생들에게 클라이밍 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분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문제에 직면해 볼으로써 자아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업중단예방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40여명의 학생들은 교실내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의 당찬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스스로를 믿고 팔과 다리에 의지하여 땀을 흘리며 어느덧 높은 정상에 다다른 자 손을 들어 'V' 표시를 하는 등 성취감을 마음껏 즐겼다. 정상까지 완주를 한 장차미(관광외식서비스과 1년) 학생은 '생전 처음 도전한 암벽타기를 통해 무섭고 힘들었지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순천효산고는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에 혁신과제를 설정하고 2020 특성화고 혁신학교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애들이 어서와, 환영한데이, 애프터데이, 화이팅데이, 삼겹살데이, 사제동행 e스포츠타워, 사제동행 마마톡, 목공예체험교실, 가죽공예체험교실, 바리스타교실, 제빵교실 등 교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른 인성과 품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며, 학교공동체가 하나 되어 행복한 학교를 일구어 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